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마지막 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0(통41).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추수가 끝난 가을 들녘을 바라보며 여유로움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 자신을 비워낸 논과 밭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풍요로움 속에서도 더 가지지 못함과 더 먹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불행한 것은 더 소유하지 못함이 아니요 비우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기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총기사고와 화재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부상자들을 속히 치료해주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해주십시오. 삶에 대한 비판 속에서 타인을 향한 폭력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모습은 한 범죄자만의 것이 아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삶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회복케 하시고 조심스러운 삶의 자세를 갖추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마5:3,4 인도자

♠ 교 독 문 80. 고후 4장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최희영 선생 II. 한상의 장르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322(통357).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다함께

성경봉독 I. 창27:1-17 최희영 선생

..... II. 요18:33-38a 이증자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리브가와 아곱의 저주 이성운전도사

..... II. 진리에 속한 사람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함께

- 찬 송 436(통493).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사십시오. 이 세상의 논리에 이끌려 살지 말고 주님 나라의 진리에 이끌려 사십시오.
- 다 함 께 : 아멘. 진리를 힘으로 삼고 살아야하는데 힘을 진리로 알고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주십시오. 그 누구 앞에 서건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로 주님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신약 성서의 맥잡기 / 김기석 목사	성서 속의 여성들 / 장영숙 전도사
기도 : 권미정 집사	기도 : 조항범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박소진 선생	최보미 학생
	김기석 목사	윤석철 장로	권미정 집사

11월	영접위원	한완식 최철수 박석희 박애순 조항미 박성실
	헌금위원	방문성 백혜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상처

프랑스 작가이며 정치가인 앙드레 말로는 자신의 반기억(Anti-Memoirs)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격 못지않게 기억의 형태에 의해 인간이 서로 차별화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언젠가 올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해야 하며,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이 기억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 기억이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즐거움, 슬픔과 만족감 같은 것들이 단순히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보다 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에서 실제 일어난 일들은 우리 인생의 전체 이야기 속에서 그런 일들이 어떤 형태를 갖느냐보다 덜 중요할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비슷한 질병이나 사고나 성공이나 깜짝 놀랄 일 등에 대해서 각자 다르게 기억합니다.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보다는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기억하며, 또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자시들의 개인 역사 속에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자아 인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감정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지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랄 만한 것이 아닙니다. 후회란 쓰라린 기억이고, 죄책감은 자신을 고소하는 기억이며, 감사는 즐거운 기억이며, 이 모든 감정들은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 양식에 어떻게 통합하느냐는 방법에 따라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새로운 느낌과 생각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다양한 삶의 경험 가운데 그런 느낌과 생각들이 차지할 공간을 제공합니다.

.....

이 때문에 의학,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사업처럼 사람들을 돕는 모든 전문직들은 항상 환자나 고객의 기억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이야기를 해주시죠.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당신을 지금 이곳으로 인도한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이들 치료자들이 듣는 것은 단지 사건들뿐만 아니라 사건들에 대한 기억들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빈번히 부딪히는 고통은 바로 기억에 의한 고통이라고 말해도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 고통들은 치유를 필요로 하는 상처 입은 고통들입니다. 소외감, 외로움, 분리감,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감, 신경 쇠약, 불면이나 손톱을 물어뜯는 것 같은 이 모든 증세들이 바로 어떤 기억들이 취하고 있는 양상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난 것들입니다. 이런 기억들이 때로는 우리 존재의 핵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좋은 기억들은 우승컵, 장식, 학위, 보석, 꽃병, 반지, 초상화 같은 외적인 표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우리에게 감추어져서 잊혀지기도 합니다. 이런 기억들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장소에서 치유받기를 거부하고 따라서 우리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별로 좋지 않은 기억에 대해 가장 먼저 즉각적으로 취하는 반응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재빨리 자신에게 또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잊어버립시다. 그 일은 없었던 걸로 해둡시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더 좋은 것들을 생각합시다.”

우리는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또는 국가적 고통이든지 잊어버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그 잊혀진 기억들이 독자적인 힘을 갖고서 우리가 인간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일을 가로막게끔 자신을 허용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이방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개인의 역사를 우리가 꿈꾸는 환상에 맞추려고 유쾌하고 편안한 크기로 잘라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일은 우리의 가장 친밀한 선생이 우리의 적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고통스런 기억들과 직면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는 가운데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막2:17)는 예수님의 말씀은, 상처를 직면하는 자만이 치유가 가능하며 새로운 방식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확증합니다.

- 헨리 나우웬,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중에서

춧불

나의 눈물을 위로한다고
말하지 말라
나의 삶은 눈물 흘리는 데 있다
너희의 무릎을 꿇리는 데 있다
십자가상과 만다라 곁에
청순한 모습으로 서 있다고 좋아하지 말라
눈물 흘리지 않는 삶과 무릎 꿇지 못하는 삶을
오래 사는 삶이라고 부러워하지 말라
작아지지 않는 삶을 박수치지 말라
나는 커갈수록 작아져야 하고
나는 아름다워질수록 눈물이 많아야하고
나는 높아질수록 완전히 사라져야한다

- 김귀례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용길 최영혜 김정길 최숙화 김정섭 김준호 곽혜자 김훈동 유경순
 김혜권 박애순 배삼순 권호천 손성현 안정숙 이봉옥 임주빈 최현옥
 장성호 조문규 진정숙 조현권 전해리 이광용 형인순 무명1

월정헌금:

김 크 박석희 조항미 송임희 송의섭 이은자 전영자 하현철 최성애
 백성래 유지은 정완수 김재광 박상규 문희창 이현순 안길상 이형숙

감사헌금:

조병무 김윤숙 이성범 이우원 옥귀희 전세종 전성오 김용래 류건형
 오현정 이봉옥 전해리 무명6

녹색꿈 헌금:

오자영 무 명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정두리	장혜숙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서정순	노순옥
안디옥	임정자	임정자	이재문	임정자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신영신	박경원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안정숙	박애순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송의섭	오정숙
시온	박효선	허정윤	박효선	홍복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이기분	최숙화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이봉옥	유영남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이정은	이형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오현정	정현주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김희우	정영선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유경순	박옥식
고린도	이영란	이영란	윤정화	배삼순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박혜경	최영혜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대림절** : 이번 주로 성령강림절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2. **임원회** : 2부 예배 후에 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3. **수요집회** : '성서 속의 여성들'이란 주제로 장영숙 전도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4. **보고서** : 당회 준비를 위하여 각 부서와 선교회의 2009년 활동 보고서를 29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5. **세례입교교육신청** : 이번 성탄절에 세례를 받기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셔서 교육 일정을 상의하기 바랍니다.
6. **기획위원회** : 다음 주일(29일) 오후 3시에 담임 목사실에서 기획위원회가 열립니다.
7. **장례** : 이인섭 권사님께서 지난 20일(금) 별세하셨습니다.
8. **결혼** : 최인환 전도사와 박수정 씨가 28일(토) 11시 30분에 대전 선교감리 교회에서 결혼을 합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합니다.
9. **신앙실천** : 자기 자량은 줄여가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을 늘려가십시오.

* 떡 : 이재문 권사 (고 유중회 집사 1주기)

* 식당 봉사 : 빌립보 속 (다음 주 : 빌립보 속)

* 설거지 봉사 : 이현순 박시내 (다음 주 : 곽상준 최경미)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